



모바일로도 동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동행

동행플러스

신사참배 첫 순교자 - 이상욱 목사

그리스도인의 향기

25년 신우회 사역 - 한상욱 은퇴권사

신앙의 유산

47년 믿음생활 - 이상의 은퇴장로



www.youngeun.or.kr

9 600424 840427



따뜻한

따뜻한 바람이 얼었던 대지를 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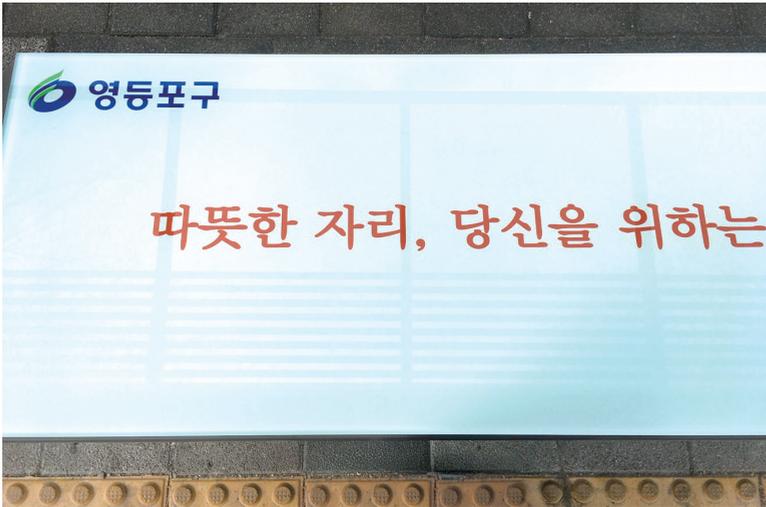
따뜻한 마음이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따뜻한 불빛이 어둠던 세상을 밝힙니다.

따뜻한 손길이 메마른 마음을 적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아 갑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전도서 4:11)

글·사진 | 서현이 기자



철원제일교회 옛 교회터에서
이상욱 목사(중앙)와 함께 한 청년부

월간 동행 영은영상홍보부

창간일 1984년 4월 27일

발행일 2026년 3월 1일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02-2676-7171~2

발행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집인 최윤호 장로

편집차장 김명희 권사 김창원 안수집사

편집 김경원B 김명희 김창원 김한욱

윤정림 이숙경A

기자 김명희 김재원 나영 서현이

송경란 윤정림 이숙경A 이종은

사진기자 허영준

디자인 인스피릿디자인

월간 동행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과 웹진 동행

월간 『동행』과 교회의 또 다른 소식을
교회 홈페이지(YES)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 따뜻한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 열정을 더하다, 뜻을 정하여 이승구 목사

08 **그리스도인의 향기** | 25년간 지켜온 병원 신우회 사역 한상욱 은퇴권사

10 **동행플러스** | 신사참배 첫 순교자 강종근 목사 이상욱 목사

14 **구역식탁** |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은자 은퇴권사

16 **신앙의 유산** | 47년 믿음 생활 이상의 은퇴장로

19 **소식&나눔** | 교구목사소개 최광주 목사 외

| 유아부 겨울성경학교 정예림 교사

|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박천권 교사

| 아동부 연합 찬양캠프 김라은 학생

| 중등부 동계수련회 양승아 학생

| 고등부 동계수련회 김선규 학생

| 어울림 2부 컬러링북 봉사활동 장민호 집사

| 영은상당실 운영 재개 장미애 목사

29 **청년마당** | 청년부 비전플러스 김윤슬 청년

| 필로스 설 떡국 나눔 송도현 청년

31 **선교현장 속으로** | 태국 치앙라이 선교 소식 노석희, 길영순 선교사

33 **슬기로운 교회생활** | 재의 수요일 박대원 목사

34 **생활노트** | 알고도 당하는 시대, 피싱사기 나영 집사

36 **뒷표지** | 2026년 상반기 장년신앙교육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고 싶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편집
회의 검토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간동행 이메일 yemagazine@naver.com]

열정을 더하다, 뜻을 정하여 [단1:8]

글_ 이승구 담임목사



다니엘은 성경 속에서 ‘열정’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관통하는 열정의 세 단계를 살피며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인 열정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 청년의 열정 - 거룩한 선 곳기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B.C. 605년경)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의 유능한 청년들을 데려와 세 가지의 의도적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우상의 도시 ‘바벨론’으로 사는 곳을 바꾸었습니다. 둘째, 율법 대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의 ‘다니엘’ 대신 ‘벨 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 하소서’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꿈

니다. 심지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여 동화시키려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단1:8)

다니엘은 사는 곳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는 것, 바벨론 학문을 배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받아들였으나 음식만큼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식탁에 오르는 고기와 포도주는 바벨론 신상에 바쳐진 제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레위기 등 율법에서 금지한 부정한 짐승의 고기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에 대한 질문이자 그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



설교 영상보기

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청년 시절 다니엘의 열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선 굿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벨론 화하는 환경 속에서 그는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최소한의 영적 보루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아 보이는 순종을 통해 다니엘을 제국의 총리로 세우는 큰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만의 영적 점검 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흐름 속에서 ‘여기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겠다’라는 지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내 삶에서 나를 가장 ‘세속화’ 시키거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을 점검하십시오. 대상이 정해졌다면 작은 것이라도 규칙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이 ‘고기’를 거부하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듯이 사소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이 열흘의 시험 후에 자신의 건강함을 증명했듯이 그 선을 지켰을 때 내 마음의 평안과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결과를 증명하십시오.

2) 중년의 열정 - 민첩함 점검하기

중년의 다니엘이 보여준 열정은 지속되는 성실함과 두려움 없는 진실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꾸는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아내라고 박수와 술객들을 압박하며 죽이려 할 때였습니다.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왕이 교만하여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불길한 꿈을 해석하며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십시오.” 권력자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열정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시대에는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제국의 박사와 술객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명철과 지혜가 비상한 사람’으로 불리는 다니

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은 왕이 권하는 자주색 옷, 금 사슬, 나라의 셋째 통치자와 같은 선물이나 자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 시기의 다니엘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단 6:3)

‘민첩하다’라는 말은 일을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여 영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성실하고 진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부터 메대와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세 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계속 중용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민첩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가?”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했던 선택은 없었는지, 결과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고려했는지 진실하게 점검합시다. 그리고 “오늘 나는 최고의 결과물을 냈는가?” 자문하십시오. 이것은 성공을 자랑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을 다했는지 결과의 크기보다 태도의 깊이를 성실하게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노년의 열정 - 전에 하던 대로

황혼기에 접어든 다니엘의 열정은 가장 견고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전국을 다스릴 총리 세 명을 두었는데 그중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이를 질투한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 근거도,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단6:4). 그러자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의 신앙을 역이용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6:10)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뚫히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합니다. 청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어온 ‘경건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기에 열정의 원천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튿날 아침 왕이 두려움과 기대 속에 다니엘을 불렀을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며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단6:22)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일 후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전 국민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선포(단6:26)합니다.

노년의 다니엘에게 열정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는 에너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한 노인의 일관된 신앙적 열정이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고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환경이 좋을 때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나, 청년일 때나 노년일 때나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열정을 지켜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의도적으로 ‘영적인 창문’을 내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열정은 특별한 환경에서만 가능한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고, 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습관의 열매였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선을 구고, 민첩함을 점검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성숙한 열정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년간 지켜온 병원 신우회 사역

한상욱 은퇴권사

한상욱 은퇴권사는 1950년 충남 논산군 부적면에서 태어났다. 한 권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다.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 이후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을 양육했다.

권사님은 영은교회에 1969년에 등록하고 찬양대와 교사로 봉사하며 2000년도 유치부 부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영등포노회에서 권사님을 김안과병원(구 건양병원)에 파송했다. 유치부 부장직을 감당하기도 힘들어 눈물이 났는데 병원 사역까지 맡게 된 것이다. 허남기 목사님은 순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며 남편(구한회 은퇴안수집사)에게도 권면하셨다. 작정 기도로 준비하는 중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큰 음성을 듣고 병원 사역에 순종했다.

당시 사역과 봉사가 생각보다 힘에 겨워 많이 울며 사역했다. 권사님은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때 권사님의 힘든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느꼈다. 봉사직이지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파송했음을 잊지 않고 직원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했다. 성심껏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기도했고 도움을 줬다. 사역하는 동안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많았고 기적과 같은 회복도 있어서 감사했다.

권사님은 2000년 4월 1일부터 2025년 12월 까지 이어온 25년의 김안과병원 사역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셨다”** 라고 고백한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우들을 돌봤다. 주일은 2부 예배 후 출근하여 환우들과 예배드리고 입원환자를 심방하고, 저녁 시간에 집에 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영은교회에서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심야기도회를 드렸지만, 교인들은 권사님을 생경하게 바라보며 **“새신자 등록은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늘 목이 말랐다. 그럴 때일수록 김안과병원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준 구역’** 이라 생각하고 구역장처럼 열심히 섬겼다. 김안과 직원들의 입원, 수술, 치료 등의 소식을 들으면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의 일하심을 체험했다. 전도 열매도 많았고 문제해결도 많았다.

김안과병원은 개인병원이어서 기독교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매년 성금요일에는 신우회 회원들과 정성껏 포장한 달걀을 점심 시간에 직원과 입원환자들에게 나눠 줬다. 부활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권면도 했다. 대림절이 시작되면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12월 24일에는 점심에 떡, 과일, 음료를 나누며 주님 오심을 알리며 성탄의 기쁨을 나눴다. 직원들의 애경사에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갔다.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민지** **않**는 직원이라도 **병문안을 가 상담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면, 좋아하며 감사함으로 신우회 모임에 나왔다.** 이들이 교회에 다니며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경험했다.

권사님은 병원 행사와 내용을 잘 숙지해 병원에 협조하며 활동해 병원으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 범유행을 기점으로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 시절에는 신우회 예배를 줌(비대면 영상 소통/ 회의)으로 드렸으나, 주일 환우 예배는 드리지 못했다. 코로나 이후에는 환우 주일예배를 오후 3시 30분에 드리게 되어 영은교회 여전도회 모임

에 참여할 수 있었다. 권사님이 사역하는 동안 영등포노회와 영은교회 영등포여전도회연합회 후원과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



병원사역 퇴임식

한상욱 은퇴권사와 남편 구한희 은퇴안수집사(앞줄 중앙)

25년 동안 병원 신우회 사역을 마치며 가진 권사님의 퇴임식에 영등포노회 총무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권면을 해주셨다. 영은교회 장미애 목사님, 김영호 장로님, 선교부, 친지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퇴직한 직원 등 신우회 회원 40여 명이 함께 예배드렸다. 병원 직원 일동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원장님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권사님은 김안과병원 복음화와 신우회 부흥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는 김안과병원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답사를 남겼다.**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첫 순교자 강종근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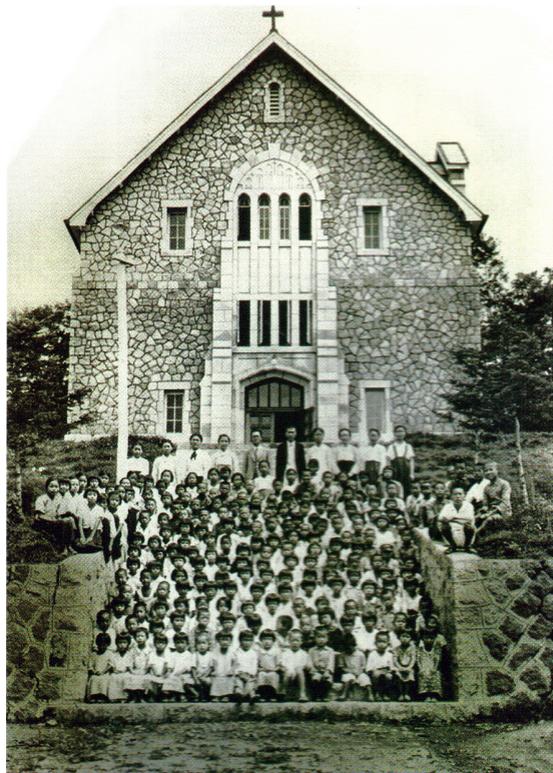


이상옥 목사
(철원제일감리교회)¹⁾

철원제일감리교회(구철원제일교회)는 1905년 장로교 웰본(Welbon) 선교사가 개척했다. 1907년 선교구역 분할정책으로 철원이 감리교 선교지역이 되며 철원읍감리교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철원읍감리교회는 영서북부지역의 선교와 교육, 사회봉사의 중심이 되었다. 1919년 3월 10일 강원도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으며, 항일단체인 철원애국단이 조직되어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일제의 박해에도 교회가 성장하여 지금의 터로 이전했다. 당시 유명한 건축가 윌리엄 보리스(W. M. Voris)가 교회를 설계했다. 1937년 9월 30일, 198평의 2층 석조건물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성도 모두가 예배당을 봉헌했다. 교회의 이름을 철원제일교회로 정했다.

당시에 교인 수는 어린이가 275명, 장년이 337명이었다. 교회는 유치원과 학교, 구세복음병원을 설립해 운영했다. 선교가 활발해지고

부흥하기 시작한 교회에 신사참배 거부 운동의 첫 순교자인 강종근 목사가 1939년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1937년 건축한 철원제일교회와 아동부 어린이들

1) 이상옥 목사: 1986년 강원도 철원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월하교회 전도사로 부임하여 28년을 목회했다. 그는 월하교회에서 900m 떨어진 곳에 한국전쟁 때 미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철원제일감리교회를 2013년 '북원건축기념예배당'으로 건축 봉헌하고 월하교회와 통합하여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40년 목회).

강종근 목사, 철원제일교회 담임목회 시작



강종근(姜琮根) 목사는 1904년 9월 29일 평안남도 강서군 증산면에서 부친 강영동과 모친 박형옥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만주 봉천성 유하현으로 이주해 학교에 다녔다. 1925년 배재학당을 졸업했고, 1928년 감리교 협성신학교(현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윤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가 있는 만주 철령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1936년 경기도 연천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여 2년간 목회하였다. 당시 강종근 전도사는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조선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독립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교했다. 강 전도사는 1938년에는 강원도 철원군 김화 창도교회에서 사역했고, 193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회 정회원이 된 후 철원제일교회를 담임했다.

강종근 목사, 신사참배 거부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민족 종교인 신도(神道)를 국교로 삼고 일왕을 천황으로 신격화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소수의 교회를 제외하고 신사참배를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 의식’이라고 규정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감리회도 이미 신사참배를 결의했으나 강종근 목사는 설교 시간에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며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1941년 9월 강 목사가 철원제일교회에서 시무하던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조선총독부의 ‘사상범 예비 검속령’에 의해 검거됐다.

강 목사가 검거되는 상황을 당시 5살이었던 막내딸 서옥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일본 순사가 아버지를 잡으러 주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이 대부분 출애굽기였고, 우리나라는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은 아버지께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설교를 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순사가 눈앞에 나타나자, 아버

지는 당당하게 ‘우리나라는 반드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나는 어렸기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지만, 이날의 일은 기억하고 있으며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강종근 목사, 끝내 순교하다

강종근 목사는 철원경찰서에 구금되어 고문과 매를 맞으며 가혹행위를 당했고, 서울로 이송됐다. 이 소식을 들은 철원제일교회 성도들은 소리 없이 철원역으로 모였다. 그리고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불렀다. 일제는 강종근 목사가 설교와 청년부 간담회에서 민족주의를 고양해 조선독립을 꾀했다는 죄목을 씌워 1941년 10월 9일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1941년 형공 제1587호).

강 목사는 연천교회 담임 때부터 교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품고 열심히 공부할 것을 격려했다. 특히 창도교회에서의 사역이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형기는 1년 6개월이었으나 90일간의 미결 구류(未決拘留) 기간 중 받은 혹독한 고문으로 쇠약해진 강 목사는 서대문형무소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했다. 간수들은 강 목사를 방치했고, 죽기 직전에 형무소 땅바닥에 눕혀 놓고 가져가라고 했다(윤희성 사모 비망록). 급히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옮겨서 치료하려고 했으나, 1942년 6월 3일 새벽에 끝내 순교했다.

강종근 목사는 마지막 면회에서 윤희성 사모에게 원수를 사랑할 것을 당부했다. “여보, 나는 주님 곁으로 갑니다. 절대로 나를 취조하고 감옥에 보낸 일본 경찰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네 명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88장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를 불렀다.

철원제일교회 옛 교회터(좌)와
2013년 철원제일교회복원 기념예배당(우)



1942년 6월 3일 38세인 강종근 목사는 신앙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 숨지기 직전 “나는 마음이 기쁘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순교자 강 목사는 2003년 8월 15일 건국훈장애국장을 추서 받았다. 그의 유해는 2006년 11월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적색의 순교와 백색의 순교

철원제일감리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순교자 강종근 목사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기에 말씀드리



철원제일교회 옛 교회터에서 이상욱 목사(중앙)와 함께 한 영은교회 청년부(2025. 8.29)

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며, 만일 ‘예수 믿으면 죽는’ 일이 생길 때,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리라 확신한다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 피 흘림이 ‘적색의 순교’라면, 꼭 죽어야만 하는 순교가 아닌 살아서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에서 이전보다 더 눈물 흘리며 헌신의 땀을 흘리는 것을 ‘백색의 순교’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백색의 순교자’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되,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니 나는 마음이 기쁘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기원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은자 은퇴권사
(301구역)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남편과 지켜낸 신앙

이은자 은퇴권사님은 1955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결혼 후 27세에 서울로 올라와서 북아현동에 있는 교회에 한 달 다니다가 남편(故 이천득 집사) 사업 때문에 양남동(현 양평동)으로 이사했다. 그 이듬해에 언니(이환에 은퇴권사)의 전도로 영은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반대를 피해 비닐봉지에 성경을 숨겨서 남편과 함께 교회에 몰래 다녔다. 그러던 중 남편에게 병이 나자, 어머니는 남편을 무당에게 데리고 갔다. 그리고 성경을 내다 버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허락했다. 이후 어머니도 파주에 있는 동네 교회에 다니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다.

권사님도 어린 시절부터 무척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후 이전보다 더 밝고

건강해졌다. 권사님이 기도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서 남편과 함께 감사기도를 드리곤 했다.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믿지 않으셨던 친정어머니도 영은교회에 다니다가 돌아가셨다.

은혜와 섬김의 교회 생활

남편과의 다정한 모습을 보고 “둘이 너무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도 종종 들었다. 아픈 남편이 천국에 갔을 때 마치 남편을 빼앗긴 느낌이였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대신 내 남편을 데려가셨구나!’ 라고 생각했다. 남편과 사별 후 주님은 권사님에게 권사 직분을 맡겨주셨다. 2018년에 권사로 임직받아 2025년까지 8년 동안 교회를 섬겼다.

권사님은 식당과 반찬가게 운영 경력을 살려

서 2016년 집사 시절부터 교회 주방에서 2년간 봉사했다. 2018년에 권사가 된 후에는 해외선교부에서 차장을 맡았고, 이어서 예배부에서 2년, 주방 봉사 1년, 새가족부에서 2년 봉사하다가 은퇴했다. 교육 3부 어울림 부서와도 함께했다.

모든 부서의 일이 다 은혜였지만 특히 새가족부에서 봉사한 기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권사님은 여기저기 지역 교회를 다니다가 영은교회에 탐방 온 사람들에게 조용히 다가가기 먼저 말을 걸고 관심을 보였다. 등록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봤다. 마침내 그들을 영은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한 일이 가장 보람 있었다.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새가족부 담당자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교회에 건의해서 유니폼도 맞췄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수요 예배 때는 어린 딸을 업고 다니기도 했다. 덕분에 딸은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들(이재환)과 딸(이현정, 중등부 교사), 외손주들(문서준, 문서후)도 영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

좋아하는 찬송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다. 사업장인 식당 주방에서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양을 매일 듣는다. 함께 일하는 직원 모두가 권사님 덕분에 매일 이 찬양을 들으며 일을 한다. 하루는 평소에 직장생활에 불만이 있던 직원이 그 찬양곡을 듣고 나서 순한 양처럼 변하는 모습을 봤다.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꼈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8절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영은교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직분자가 일반 성도를 더 배려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영은교회에 젊은 세대가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은퇴 후 권사님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노방전도에 동참하기로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권사님은 현재의 행복한 삶에 늘 감사드리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이웃을 보살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47년 믿음 생활



이상의 은퇴장로

세속의 여정

이상의 은퇴장로님은 1944년 7월, 충청남도 보령군 대천면 요암리에서 부친 이호우와 모친 박순이 사이의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장로님은 서울에 와서 여러 일을 하며 돈을 모아 이를 기반으로 건축업을 시작하고 자금을 마련했다. 30대 중반, 꿈과 패기가 넘쳤던 장로님은 더 큰 포부를 품고 몇몇 투자자와 함께 주택 면허를 내어 지방에 건설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다른 경영진의 이중 삼중 분양 사기 때문에, 모든 자금을 회사에 투입했음에도 결국 부도가 났다. 이 일로 장로님은 거의 전 재산을 잃었다. 그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삶의 고난과 시련을 준 것을 늘 마음 아파했다. 겨우 전셋집을 구해 살던 어느 날, 집주인이던故 현성협 권사의 전도로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 당시 이상의 장로님은 깊은 실의에 빠져 두 문불출하며 자포자기한 상태였으며, 건강마저 매우 좋지 않았다. 본래 무신론자였던 장로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믿기로 결심했다.

1979년 10월, 영은교회에 등록한 후 1980년 이용남 담임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아 정식 교인이 됐다.

믿음의 여정

장로님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제대로 믿어보자’라는 각오로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교회 성경 공부(성서대학) 전 과정을 수료했다. 생활이 궁핍한 와중에도 십일조 생활만큼은 철저히 준수했다.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부도 당시 갖고 있던 차용증서마저 모두 용서하는 마음으로 없애버렸다. 이후 하나님의 복이 시작됐다. 30여 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다시 재산을 모았고, 이를 기반으로 건축 사업을 재개하여 재정적으로 회복했다.

이상의 장로님은 1998년 4월 9일에 집사 안수를, 2007년 4월 22일에 장로 장립을 받았다. 이후 8년간 여러 부서를 거치며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장로 직분을 충실히 감당했다. 허남기 목사님이 추진하던 청지

기 사역에서는 고아원 돕기 팀장으로 7년, 33개 청지기 사역팀 협의회장으로 3년 동안 헌신했다. 팀원들과 함께 오류애육원, 노량진보육원, 강화보육원 등을 찾아다니며 원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직접 나누고 실천했다.

아가페 찬양대 대장으로 봉사할 때 아내와 아들과 딸 모두 함께 찬양대를 10년 넘게 섬겼다. 각종 칸타타와 영성합창제에도 참여했다. 해외 선교 사역에도 관심이 많아서 중국과 필리핀 선교 사역지 헌당 예배에 참여했고, 종현덕 선교사님이 있던 말레이시아에 제 1기 선교 방문팀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선교분과장으로 사역할 때는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일원과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을 순회했다. 특히 러시아 날치크(Nalchik) 교회에서 노회장 3명

과 장로 2명을 세우는 뜻깊은 자리에 안수위원으로 참여했다. 영은 노인학교(현 늘푸른학교) 제 5대 교감으로서 어르신들과 야외 학습을 다니며 봉사했던 기억 역시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은퇴 후 여정

장로님의 47년 믿음 생활은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었다.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고, 멀리 해외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이었다.

2014년 12월 28일 장로님이 은퇴한 후에도 이러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은퇴 후 2019년 1월 투병 중이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같은 해 5월 고일호 목사님마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마음

의 고통이 컸던 시기도 있었다. 하지만 장로님은 매일 1시간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과 A4 10장 분량의 성경 암송, 1시간가량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노트에 설교 말씀이나 성경을 기록하고 정리



러시아 날치크교회 (2012. 6. 22)

하는 믿음의 일상을 보내며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으로 성경 필사 1회와 성경 통독 40여 차례를 달성했다.

잘 관리된 체력과 믿음의 열정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10박 11일간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성지 순례에 참여하여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잇을 수 없는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여전히 영등포노회 은퇴장로 모임, 장로회 산악회, 토요 노방전도팀, 갈렙 찬양대, 중보기도 사역팀, 늘푸른학교 등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장로님은 봉사와 협조를 아끼지 않는, 늘 현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갈릴리호수에서 이승구담임목사님과 함께

장로님은 영은교회를 위해 매일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첫째, 세움 받은 이승구 담임목사님이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둘째, 당회와 제직 그리고 성도들이 담임목사님의 목양 사역에 큰 힘이 되기를

셋째,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 비전 있는 세대로 성장하기를

넷째, 소외되고 궁핍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아보는 향기로운 교회가 되기를



故 한은순 권사 은퇴식

장로님은 故 한은순 권사님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미정, 덕형, 현정)를 두었고 3대가 함께 영은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시편 119편 105절과 133절을 좋아하는 장로님은 현재 노년의 삶을 애창하는 찬송가 438장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다고 말씀한다.

인터뷰·글 | 김창원 기자

교구목사소개



1교구
한진구 목사

살롬~올해부터 1교구를 담당하게 된 한진구목사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행복을 누리는 1교구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과 기쁨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멀리 있는 목회자가 아닌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역장(장로): 김영호, 정재훈, 김우권, 강대희
지역: 양천구, 화곡동, 발산동, 김포, 장기동, 강화



2교구
신요한 목사

살롬~2교구를 담당하게 된 신요한 목사입니다. 2교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설렘이 되는 그런 행복한 교구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음에 샘물 같은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역장(장로): 김영일, 김광일, 전호성, 이도수
지역: 양평동3-6가, 당산동3-6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고양시, 경기 북부



5교구
최광주 목사

살롬~5교구를 섬기게 된 최광주 목사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품고 5교구를 함께 섬기길 원합니다. 함께 써 내려갈 아름다운 이야기와 행복한 추억을 기대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역장(장로): 여흥구, 서영목, 이갑현
지역: 양평동1-2가, 염창동, 등촌동, 방화동, 마곡동, 공향동, 부천시, 시흥시, 인천



3교구
정성훈 목사

살롬~*3교구에서 함께하게 되어 감사하고 행복한 정성훈 목사입니다. 우리 3교구는 따뜻한 열정으로 새가족들과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를 꿈꿉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사랑의 온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섬김과 격려를 통해 서로의 삶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지역장(장로): 안영기, 이승훈, 김철수
지역: 양평동1가, 당산동1가, 신길동,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강남구, 강동구, 분당구, 성남시



6교구
김민식 목사

살롬~6교구를 섬기게 된 김민식 목사입니다. 열정과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세워지는 6교구 되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정이 오고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6교구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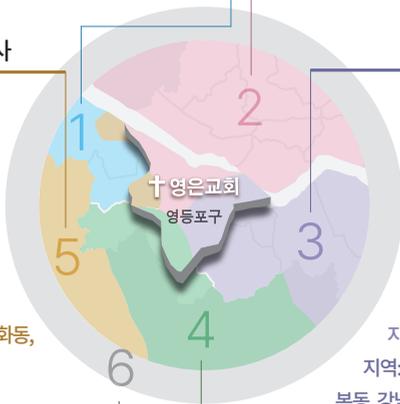
지역장(장로): 이상우, 공현진, 배기선
연령별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70대



4교구
박대원 목사

살롬~4교구를 섬기게 된 박대원 목사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구, 사건의 열매가 맺히는 교구,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구. 4교구가 아름답게 써 내려갈 신앙의 이야기에 함께하게 되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영은의 BASIC위에 4교구의 열정과 삶이 아름답게 덧입혀지는 한 해가 되도록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지역장(장로): 차재협, 최영호, 정재근, 김석진
지역: 문래동, 대림동, 도림동, 금천구, 구로구,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안산시





뺏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유아부 겨울성경학교



정예림 교사

2월 7일(토)~8일(주)이틀 동안 유아부 겨울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뺏속까지 그리스도인 뽀그맨, 뽀그걸”이라는 주제로 한 달 전부터 선생님들은 매일 릴레이 기도로, 유아부 아이와 학부모는 가정에 배포된 기도문을 통해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뺏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유아부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도 진지하게 기도하며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학교 첫날은 다양한 활동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불러 익숙해진 주제 찬양곡을 부르고, ‘찰찰찰 탬버린’을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방해물을 제거하는 게임, ‘뽀그맨&뽀그걸 페스티벌’을 통해 뺏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체험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방해물을 제거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말씀 조명등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2025년부터 유아부 교사로 섬기며 세 번째로 참가하는 성경학교였습니다. 제가 맡은 반 아이 중 단 한 명만 참여한다고 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저희 반 친구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아이들과 정이 들었는지 다른 반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호랑이반 아이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성경학교 마지막 날인 주일에는 우리 호랑이반 친구 두 명이 참여하여 남은 일정을 아이들과 더 친밀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아이들이 그림고 보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저 혼자 살짝 감격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도 제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주셨습니다.



준비됐나요?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박천권 교사

2월 7일(토)~8일(주) 유치부 아이 50명과 교사 45 명이 “준비됐나요?”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해맑게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이지만, 이번 성경학교 기간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대해 배우며 꽤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준비를 몇 주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준비됐나요?”라는 주제에 맞춘 찬양과 율동을 아이들과 함께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덕분에 성경학교 당일, 아이들은 주제 찬양과 율동을 낯설어하지 않고 익숙한 찬양을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일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과 공부 시간에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며, 어린아이이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믿음으로 기다려요” 활동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실 조명을 모두 끄고 어두워진 상태에서, 아이들은 각자 손에 든 작은 등불을 켜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을 조용히 바라보며 두 손을 모은 아이들의 모습은 무척 예뻐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해 보는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직 한 길” 활동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한 아이가 안대로 눈을 가리면, 앞선 친구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 표지판이 있는 곳까지 길을 안내해 주는 놀이였습니다. 앞이 안 보여 조심스러워하는 친구를 다정하게 이끌어 주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진지한 활동 사이에는 아이들답게 신나게 땀 흘리며 뛰노는 체육 시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맘껏 웃고 어울리며 한층 더 친해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동부 연합 찬양캠프



김라은 (소년부)

“영은, 열정을 더하다”라는 2026년 교회 표어처럼 2월 7일 토요일 유년부실에서 아동부 연합 찬양캠프가 뜨겁게 시작됐다. 1조부터 6조까지 있었고 그중에서 나는 2조 조장이었다. 오늘 하루가 정말 기대됐다. 매서운 날씨 가운데 옹기종기 모인 우리는 오전 9시까지 찬양을 하고 개강 예배를 드렸다. 초등부 정희수 전도사님께서 개강 예배 설교를 하셨다.

전도사님의 유익한 특강이 끝난 뒤 배고픈 우리는 조별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메뉴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엽기떡볶이, 닭강정, 김밥이었다. 우리 2조는 밥을 먹으며 몇 번째 울동을 할 건지 정했다. 우리 조 친구들은 대견하게도 모두 가장 어려운 울동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난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조를 믿고 열심히 해보자고 했다.

*울동 4개 배우기 * * *

예배를 마친 후 첫 순서는 새 울동 배우기 시간이었다. 윤성호 선생님께서 조장들에게 미리 보내준 4곡의 울동을 각자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다. 이 울동 4개를 다 배운 뒤 한 개를 골라 외워서 조별 발표 시간에 한 조씩 발표하는 방식이었다. 울동 4개를 배우고, 유년부 김찬영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찬양 특강’을 들었다. 우리가 찬양대로 선 이유, 찬양의 의미 등 찬양과 관련된 많은 사실을 알게 됐다.

*대망의 울동 발표회 * *

점심 식사 후에는 중등부 지휘자 이예린 선생님께서 발성을 가르쳐주셨다. 신기하게도 목이 짹 짹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발성 연습 뒤에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다. 훌라후프 장애물 빨리 넘기를 했는데 우리 조가 1등을 했다. 그 게임 말고도 물통 던지기, 훌라후프 돌리기(유년부와 초등부는 허리로 돌리기, 소년부는 목으로 돌리기) 등 많은 게임을 하였다. 정말 재밌었던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끝나



고 조별 모임을 했는데 그 시간에 우리 조는 완벽하게 울동 준비를 끝냈다. 드디어 대망의 조별 발표 시간! 우리 조는 3번째 순서였다. 발표 중간 쉬는 시간에 파도타기 안무를 넣어 더욱 멋진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막상 발표가 끝나고 나니 뿌듯함과 동시에 '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 우리 조가 1등! *

나의 간절한 마음을 윤성호 선생님이 아셨는지 모든 조에게 발표 기회를 한 번씩 더 주셨다. 우리는 처음보다 노래도 크게 부르고 파도타기 안무도 성공적으로 끝냈다. 정말 뿌듯했다! 다음 순서인 결단의 시간 기도회를 하고 나서 순위를 알려준다고 하셨다. 나는 기도회 내내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마침내 드디어 순위 발표 시간이 왔다. 2등, 3등을 부를 때까지

도 우리 조가 불리지 않아 약간 걱정했지만, 결국 우리 2조가 1등을 했다! 1등 상품도 받고 우리 조 친구들은 모두 다 행복해 보였다. 정말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연습한 다른 조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했다. 나는 다음 찬양캠프에서도 조장이 된다면 조원들의 안전과 생각을 좀 더 중요시하는 조장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우리 2조 친구들아, 부족한 나를 조장으로 믿고 따라줘서 고마워. 다음에는 더 잘 챙겨줄게! 아동부 찬양캠프의 2조 조장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중등부 리셋 프로젝트: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다시 시작’



양승아 (중등부 1학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양주 여덟원에서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중등부 수련회는 제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중등부에 온 후 처음 간 수련회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서로 더욱더 친해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중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저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저와 만나 달라라고 고백했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전에는 그저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많겠지’하는 기대감뿐이었지만, 수련회를 마치고 나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탁구채로 배드민턴 치기, 높이 쌓기, 공 집어넣기, 줄다리기 등 여러 레크리에이션 활동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선생님들과 언니, 오빠들이 잘 챙겨줘서 너무 좋았고 급식과 야식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와 집회가 은혜로웠습니다. 예배 때 들었

던 말씀으로 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평소 에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제 생각을 앞세웠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특히 찬양 시간에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하던 순간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걱정도, 고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와 기도 제목도 큰 힘이 됐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기도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고등부 겨울수련회: 사칙연산 ♡♡♡♡



김선규 (고등부 회장)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오륜비전빌리지에서 열린 고등부 겨울수련회에 참여한 고등부 회장, 2학년 김선규입니다. 사실 저는 중등부 때 교회를 성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단지 출석을 인정받기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등부에서 진급한 뒤 짜여 있던 고등부의 체계와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덜어내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고등부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2, 3학년 선배들의 친절함 보살핌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고,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중, 저는 '잘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보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수련회 주제였던 "사칙연산"을 통해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영락 전도사님이 주신 말씀으로 제 안에 있던 교만과 두려움, 부담감은 '덜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랑을 제 안에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2학년이 된 지금, 저는 단순히 나이만 많은 선배가 아니라 후배들에게 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1학년 때 조건 없이 받았던 사랑을 이제는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제 삶에서 덜어내야 할 것은 '덜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며' 그 사랑을 서로에게 '곱하고' '나누는' 우리 영은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봉사, 함께 감사:

어울림 2부 컬러링북 봉사활동



장민호 (어울림2부)

어울림 공동체 소개



안녕하세요. 어울림 2부 임원 장민호입니다. 주일 3부와 4부 예배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어울림’ 공동체입니다. 어울림은 1, 2부로 나뉩니다. 1부는 ‘영유아, 학령기 자녀를 둔 부부’ 모임으로 3부 예배 이후 모입니다.

제가 속한 어울림 2부는 ‘신혼부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부부’가 모입니다. 어울림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가족 공동체’로 예배 후 모여 함께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 소그룹으로 교제하며, 때로는 가볍게 나들이도 하며 일상과 신앙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공동체원들은 각 부부 관계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고민을 혼자 끌어안기보다, 믿음 안에서 함께 말씀 배우고 고충을 나누며 한 걸음씩 내디디며 성장합니다. 완벽한 가정을 자랑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응원하며 ‘함께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려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컬러링북 봉사활동



어울림 2부는 최근에 모임 시간을 조금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사단법인 ‘세상아이’에서 진행하는 ‘컬러링북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컬러링북은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알파벳과 단어를 익히고 따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책임입니다. 이러한 컬러링북을 만들어 캄보디아 ‘킬링필드(Killing Fields)’ 사건의 트라우마로 학교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 심각한 빈곤으로 교육을 꿈꿀 수조차 없는 캄보디아 아동에게 보냅니다. 저희는 그 책의 표지를 꾸미고 속지를 한 장 한 장 모아 책을 엮어 완성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30분이면 만든대!”라는 말을 듣고, ‘오 생각보다 간단하겠는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표지를 어떻게 꾸밀지, 무슨 색으로 꾸며야 할지 고민이 되고, 종이를 정갈하게 맞추는 것도 은근히 높은 집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책을 엮는

과정에서 종이가 어긋나기도 하고, 매듭이 풀리기도 하고, 손이 자꾸 꼬여서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가정 대부분이 책 제작에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래도 몇 번씩 다시 정리하고, 작업한 부분을 검토하며 천천히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래도 신기하게, 그 시간이 힘들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모을 수 있었던 건, 모두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예쁜 컬러링북을 보며 즐거웠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컬러링북 봉사활동이 더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들었다’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책을 만들며 서로 도와주는 사이에, 각 가정의 평소에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부부로서의 고민, 요즘 감사한 일, 그동안 있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고, 대화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반적인 모임이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이야기들이, ‘함께 봉사한다’라는 공통의 목적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 시

간이 저희에게는 정말 보람차고 마음이 꽉 찬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어울림 2부는 가족 공동체로서 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나눔이 있는 자리, 서로의 가정을 세워주는 시간 그



이 마음이 있으니, 비록 손이 느리고 서투른 탓에 제작 과정에서 실수를 반복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색을 고르고, 누군가는 재료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엮는 방법을 공유하며 서로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튼튼해!”, “여기 조금만 맞추면 깔끔해져!” 말 한마디, 손 하나 보태는 순간들이 모여서 책이 점점 예쁘게 완성되어

리고 이웃을 향해 함께 손을 내미는 실천까지, 작지만 꾸준히 이어지는 따뜻한 움직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신앙교육과 나눔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가정이 있다면 부담 없이, 편하게 어울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마음의 준비 없이 그대로 오세요.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신앙생활 공동체에 오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은상담실 운영 재개

장미애 목사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도님의 고민!
전문가와 함께 나누세요~

코로나 이후 멈춰 있던 영은상담실 운영을 재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매 주일 오후 12~2시 | 장소: 교회 2층 의료실

주차별 상담 프로그램

매월	상담분야	담당
1주 	법률 상담	정호산 변호사 신천 법무법인
2주 	건강보험 상담 (노인장기요양)	나필균 원로장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역임
3주 	심리 상담 (성인/ 청소년/ 부부/ 가족 등등)	조말희 권사 전문상담사
4주 	한방 의료 상담	임중화 집사 한의사



김윤슬 (청년1부)

공동체 안에서 피어난 열정 청년부 비전플러스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을왕리로 청년부 새내기 비전플러스 1차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막 학생 티를 벗고 성인이 되어 청년부에 들어오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그리고 신앙의 홀로서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07 새내기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청년부 임원 언니, 오빠들이 세심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도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서 점점 편안해졌고, 새내기들이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새내기 비전플러스를 통해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며 웃었던 순간들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또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걸어갈 믿음의 공동체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새내기 비전플러스를 통해 신앙의 홀로서기는 결코 혼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스스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홀로서기임을 배웠습니다. 특히 임원 언니, 오빠들의 섬김을 보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새내기들을 맞이하게 될 때, 지금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1박 2일은 단순한 추억이 아닌, 청년부 생활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저의 신앙 여정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기쁨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부 필로스팀, 설 떡국 나눔 사역



송도현 (청년부)

2월 20일 금요일 밤 영등포역 앞에서 노숙인을 위한 ‘필로스 설 떡국 나눔’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은 젊은 청년들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청년들은 영등포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적 아래 모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사정 속에서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영등포의 소외된 우리 이웃들은 그저 배고픔만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삶의 무게로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동시에,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세상에 아직 자신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미소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닿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친 삶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를 전하며 웃는 모습은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그 모습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필로스 사역은 영등포의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사역을 위해 헌신한 청년들 자신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동시에,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우는 역설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은 줄수록 더 커지고,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먼저 낮은 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닮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닮은 아름다운 청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영등포역 앞, 노숙인을 위한 설 떡국 나눔

이 사역을 통해 저는 주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태국 치앙라이 선교 소식: 성탄의 기쁨, 흐르는 은혜

노석희 · 길영순 선교사

살롬! 주님의 평강을 전합니다. 2025년의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네 계절을 모두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제 나이 만큼이나 빠른 60km의 속도로 지나가 버린 지난 일 년을 돌아보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2026년 새해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제게 주어진 '지정석'의 삶을 성실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2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이와 나누며 보냈던 감사의 고백을 기도편지에 담아 올립니다.

온 마을에 가득했던 성탄의 기쁨

이번 12월은 한 달 내내 성탄의 감격 속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빠마이 마을 아이들은 세 번의 성탄 예배와 두 번의 치앙라이 시내 여행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니다. 산간 지역 소수부족 아이들에게 시내 나들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에 쿤건 폭포와 치앙라이 꽃 박람회를 관람하며 아이들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또한 여러 섬김의 손길 덕분에 성탄 예배마다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탄: 매잔 공동체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에덴 카페에서 빠마이와 매잔 학생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두 번째 성탄: 빠마이 공동체 현지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탄: 치앙라이 한인교회 성도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선물을 나누며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했습니다.



라오스 제2 예수 마을의 시작

라오스 제1 예수 마을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데 이어, 하나님의 은혜로 제 2 예수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불길이 아카족 가운데 거세게 일어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던 마을에서 쫓겨 나면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2 예수 마을은 여섯 가정, 29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착할 땅을 구입한 것 자체가 가장 큰 성탄 선물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임대 주택 한 채에서 여섯 가정이 모여 살고 있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기도 제목: 2026년 1월부터 집 건축을 시작합니다. 주택 완공 후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아이들이 속히 학교와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새해 기도 제목

1. 메콩강 공동체와 빠마이 공동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지혜와 믿음 안에서 2학기(2026년 3월 시작)도 건강하게 보내게 하소서.
2. 치앙라이 한인교회 선교센터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3. 모든 후원교회와 개인 후원자분들의 지경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소서.
4. 세 자녀(예영, 예은, 예슬)의 앞날을 인도하소서.
5. 저희 부부(노석희·길영순)가 2026년에도 주님의 선한 통로로 충성되게 쓰임 받게 하소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에베소서 5:15-16)



사순절 시작하기

체크
체크!



박대원 목사

'재의 수요일'이란?

2월 18일은 '사순절(Lent)'의 첫 시작인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입니다. 사순절 40일의 첫 시작이 되는 수요일을 특별히 이렇게 부릅니다. 따로 예식을 드리는 교회는 아직 많지 않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여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체크 1 왜 재를 사용할까요?

재의 수요일 예식에서는 말그대로 '재(먼지)'라는 모티브를 사용하는데, 한 해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잎을 태워 만든 재를 이마 혹은 손등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릅니다. 이때 집례자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읽습니다.

...

체크 2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라!

이마나 손등에 재를 바르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읽거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

체크 3 사순절을 보내는 정신!

이처럼 사순절 첫날 재를 바르는 예식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40일의 여정동안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

체크 4 적극적인 선의 실천!

그렇기에 사순절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절제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히 행하는 절기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약 1:27) 즉 사순절은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통해 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을 따라 살기를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알고도 당하는 시대, 피싱 사기 “우리의 일상은 안전한가요?”



나 영 집사
(한국지능정보진흥원강사)

몇 달 전, 가까운 가족이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 뉴스 속의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다. 이후 강의 현장에서 이 경험을 나누며 “저도 당했지만,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많은 분이 자책하며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고, 한결같이 “진작 이런 교육을 받았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 글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전 세대를 노리는 지능형 피싱 사기

피싱 사기(전기통신금융범죄)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통신 수단을 이용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이다. 2025년 대한민국의 피싱 피해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범치는 개인의 상황과 심리를 정교하게 노린다. 지인의 청첩장·부고 문자, 카

드 발급, 우편물 미수령, 관공서 사칭 등 알려진 수법 뿐 아니라 채용 합격이나 정부 투자 기회, 이벤트 당첨금 등을 미끼로 절박함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을 모방하는 등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외부 연락을 차단하는 심리적 압박도 함께 사용된다.

알면서도 당하지 않기 위한 3가지 기본 습관

‘순간의 심리 붕괴’를 노리는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체득한다.

- 1. 스마트폰을 철저히 관리: 모르는 링크(URL)와 전화는 의심하고, 악성 앱 탐지 앱(시티즌코난, V3 Mobile 등)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는 반드시 차단하고, 기관을 사칭하며 앱 설치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자산처럼 관리: 폰 갤러리에 저장된 나와 가족의 신분증·신용카드 사진 등 민감한 정보는 삭제하고, 필요시 보안 폴더를 활용한다. SNS 일상 공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꾼은 누군가의 일상을 범죄 시나리오의 재료로 쓰기 때문이다.

3. 심리적 방어선을 세우기: ‘지금 당장’이라는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반드시 주변 사람과 상의해야 한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가족, 친구, 교인 등)을 미리 생각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화는 일단 끊고 전화 발신자가 언급한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안내받은 번호나 사이트로 다시 전화하거나 검색하는 것은 위험하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대처해야 한다

계좌동결, 신고: 먼저 은행(24시간 콜센터)에 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청(112), 정부공식 상담(1394) 순으로 연락해 신고를 한다. 원격제어 앱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 휴대폰

대신 다른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증거확보: 통화기록·문자, 입금 내역 등의 증거는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증거가 없으면 신고나 피해구제 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대응: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통합계좌관리(어카운트인포)로 내 명의의 휴대폰 개설이나 나의 금융거래 유출정보를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다. 유출된 신분증, 통장은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피싱 사기는 더 이상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어느 순간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왜 당했을까’라는 자책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행동이다. 범죄 수법은 계속 진화하지만, 관심은 가장 강력한 방어이다. 정기적으로 부모님과 자녀의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점검하고, 변화하고 있는 최신 사기 사례를 대화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피해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가족들과 몇몇 분의 대화와 관심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망이 될 것이다.



2026년 상반기 장년신앙교육 개설강좌

배움에 열정을 더하는 말씀요리사

개강: 3월 10일(화) | 종강: 5월 26일(화)

강의 기간 및 방식: 6~8주/현장&동영상 녹화 강의

신청기간: 3월 8일(주)까지

신청방법: 1층 로비 신청데스크, 홈페이지, 큐알코드

문의: 이수일 안수집사 010-4874-7247

신청서 QR코드



- 중보기도자학교
- 규! 함께 걷는 말씀
- 하이,요~(하이텔레르크 요리문답)매일 10분 묵상
- 팀 켈러와 함께하는 고전산책
- 예수동행일기
- 구역이 열리는 성경통독
- 사춘기 부모교실
- 다문화 시대,이주민 선교와 타문화 이해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로 목사 | 허남기

담임 목사 | 이승구

부 목 사 | 최광주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장미애 진윤규

전 도 사 | 김영락 김찬영 손예지

교육전도사 | 나진희 박선민 정희수 한수민 전성수 임현창

파송선교사 | 구용희 백현이

협 동 목 사 | 소병찬 김규리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은교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61 / 02-2676-7171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금요일심야기도회	오후 8:30	
화요일장인예배	오전 11:40	
모임 시간 안내	젊은세대 더누림	
	젊은부부 어울림 1부	1층 어린이집
	젊은부부 어울림 2부	2층 세미나1실

교회학교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장 소	
영아부	15개월-3세	오전 11:00	
유아부	4-5세		
유치부	6-7세		
유년부	초등 1-2학년		
초등부	초등 3-4학년		
소년부	초등 5-6학년	5층 소년부실	
꿈자람부	4-13세	오후 1:30	2층 유치부실
중등부	중학생	오전 11:00	3층 비전홀
고등부	고등학생	오전 9:00	
청년부	34세 미만 청년	오후 1:30	